

전임회장 증현 스님(왼쪽)이 소운 스님에게 단체기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신임회장에 소운 스님

1월 13일 신년하례법회서 취임

광주서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 지역 신임 불교협의회장에 소운 스님이 취임했다.

소운 스님은 1월 13일 광주 수자타서 열린 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불교는 인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불교 가르침을 접한 것이 큰 행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소운 스님은 동구불교 발전과 승가화합에 소속 회원사찰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원로스님들에게 신년하례를 올린 뒤 통알, 이·취임식, 장학금 전달식, 쌀 전달식 등이 차례로 열려 신년 첫 모임을 뜻 깊게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에 부는 어린이포교 '신바람'

축구·찬불가 포교 방편 활기, 안거 수행도…

합창단·축구교실 대폭 늘어
건전한 취미에 子母들 호평
불교와 친숙해지는 계기 돼
안거 수행으로 신심도 다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어린이 포교가 찬불가와 축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1월 13일 개최된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부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가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에서 전법활동을 펼치는 스님들이 사찰서 축구 교실과 합창단을 결성해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스님들은 연합합창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청소년을 위한 축구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매년 안거를 맞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교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가 부산 금정문화회관서 열렸다. 지난해 처음 부산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4개 사찰로 시작했으나 올해는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부산 흥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이 동참해 총 6개 사찰로 확대됐다. 이날 어린이 250여 명과 자모회원 5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어린이 합창제로 하나 되는 큰 성과를 보였다. 내년에 열릴 제3회 합창제는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안국선원 교육관, 부산 혜원정사서도 참가 의사를 밝혀 대회 성장이 기대된다.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는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이여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첫 합창제 개최를 위해 연합한 4개 사찰 가운데 관음사(회주 지현)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은 2016년 7월 창단됐다. 현재 단원은 만 6~14세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일요일 법회 후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연습 중이다. 합창단 창립 전보다 어린이법회 참가 인원이 꾸준히 늘어 어린이 포교에 희망을 보여줬다. 이뿐 아니라 범어사 포교원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을 2015년 12월 창단했다. 이후 50여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모회가 결성돼 든든한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부산 대광명사, 안국선원 교육관도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으며 동명불원도 어린이합창단 창단에 관심을 갖는 등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합창단 외에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 포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원오사(주지 정관)는 매주 토요일 운봉 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을 열고 있다. 축구교실에 참여하는 25여 명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가 대부분이다. 스님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 지역 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축구교실을 위해 원오사 신도들은 자체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유니폼 제작, 간식 등을 후원하며 1급 전문 축구지도자까지 매주 초청해 실력을 향상 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지 정관 스님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졌고 컴퓨터와 핸드폰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져 부모들이 특히 좋아한다"며 "자발적으로 자모회 구성 움직임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는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도록 돕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단은 안국선원 교육관과 불국토 청소년도량 양정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미타선원, 김해 바라밀선원, 흥법사도 어린이 축구단 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축구단을 위한 연합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찬불가와 스포츠로 어린이들이 불교를 접하게 했지만 현장서 활동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이들을 불제자로 이끌고 신심 성장을 돕는 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계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재가 동안거 감사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하안거에 이어 두 번째인 어린이 안거는 겨울방학 21일 동안 '내 안의 감사향기'라는 수행 노트에 일기처럼 감사한 내용을 적는다. 노트에는 사불과 주력, 진언 수행까지 어린이 눈높이 맞춘 수행법이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내 안의 감사향기' 노트 기획은 김경숙 흥법사 어린이청소년교육연구소장이 담당했으며, 노트 제작은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했다. '어린이 재가 동안거 감사수행'은 1월 7일부터 개별 사찰에서 진행됐으며 회향법회는 28일 오후 2시 부산 흥법사에서 봉행된다. 이번 동안거에는 부산 흥법사, 법륜 유치원,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등 12개 사찰 45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 중이다.

한편, 동련은 '내 안의 감사 향기' 프로그램을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으로 등록하고 오는 2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온고지신 마음으로 교구 발전 이루겠다"

신임 진각종 부산교구장 진광 정사



진각종 부산교구청장에 진광 정사가 취임했다. 진광 정사는 앞으로 부산·경남 16개 심인당을 이끌고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진광 정사(사진)는 1월 16일 진각종 부산교구인 범석심인당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진광 정사는 "부산교구장으로 앞서 활동한 효원 정사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성실히 이끌고, 새롭게 부임한 만큼 기존 사업을 튼튼히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직 활동을 통해 재가종단인 진각종의 모습이 낯설지 않도록 다가가고 화합하며 협조하는 모습으로 일신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태고종, 베트남 교육환경 개선 나서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 교육시설 지원 MOU



베트남 닥랑성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약식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닥랑성 관계자, 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이 베트남 닥랑성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나서 해외구호활동의 모범을 보였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복지팀은 1월 8~14일 베트남 닥랑성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식수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총무국장 송운스님, 선훈사 도우 스님, 금왕사 지봉 스님, 권영원 태고 해외복지 호치민센터장, 유영수 전라북도 닥락성 한글학교 지원센터 간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복지팀은 이 기간 동안 산골오지 초등학교인 양마우 초등학교 등을 돌아보며 교육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전라북도와 베트남 닥랑성이 진행 중인 정치·경제·교육·종교·사회·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양마우 초등학교에 우물관정 시설과 식수대 설치, 정수기 설치 및 관리, 교사 생활관 및 교실 보수공사, 학용품 후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1차 후원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닥랑성 외무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구호물자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양마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지원으로 학교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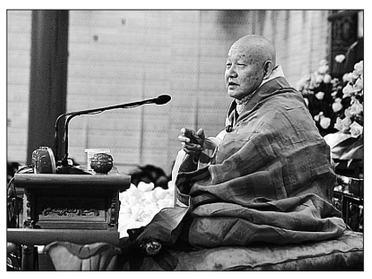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정수 식수대를 설치,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학생들을 위한 향상된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1월 9일에는 호치민 구찌구 텅턴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설치한 식수대를 점검하고 정수기 필터를 교환했다. 또 전교생 680명에게 노트 2040권, 연필 1360자루를 선물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인삼차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萬法歸一' 통도사 화엄의 장 원만회향

화엄산림대법회 총 10만 명 참가, 성황 이뤄



회향법회서 법문하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대행 성파 스님.

부처님 가르침의 광대무변함을 드러낸 화엄의 바다를 법회로 이어온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가 원만회향 했다. 통도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서 찾아온 불자가 총 10만 명에 달해 성황을 이뤘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월 16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방장대행 성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만 명이 동참했으며, 법석 후 대중의 시식과 위패봉송을 통해 선망부모와 영가를 위한 시간도 이어졌다.

방장대행 성파 스님은 "한 달 동안 80권 〈화엄경〉을 공부하며 무량복을 위한 인(因)을 심었다"며 "만법귀일 일귀하처라 했다. 세상 수많은 것에 부처님의 법을 비유하고 설명해 만 가지법이 있지만, 한 마음을 깨치면 〈화엄경〉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심안, 마음의 눈을 뜨라"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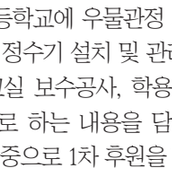
주지 영배 스님은 "올해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대강백 스님을 모셔 다양한 법석을 열고자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관심 가져줘 좋게 회향할 수 있었다"며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를 지난해 12월 18일 시작해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화엄경〉 정진을 이끌어왔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경봉스님이 1971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국내 최대 법석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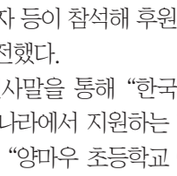
이도경 부산지사장

지구촌 최대이슈 생노병사의 원천 천하대도법
부처님 성불하신 숨쉬는법으로 죽음을 면하는 생사 해탈
두뇌호흡으로 주인혜안과 영혼에 문을 열어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되는 천장지비 용맹정진대법회

죽음을 면하여 운명을 연장한다면 종교를 초월 이세상에 누가 죽을 사랑 어디에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건강장수 부귀공명 성불하여 죽음을 면하려고 출세, 부귀, 출가, 종교, 정진, 보약 등으로 늙고 병들지 않으려고 속세를 떠나 수행하고 있으나 혜명 천지 사람사는 밝은 세상에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와 수행으로 암흑의 종교로 탈피되어 귀신들 장난에 빠져 천하를 다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바른 스승 잘 못 만난 종교종단에 빠져 말과 문자 염불 참선 각종 수행에 빠져 부처와 마음과 생명이 들어다니는 현문이나 현관 안에 마음주인과는 거리가 먼 수행으로 방석과 학문수행에 극락과 천당을 유유하니 자신이 늙고 병드는 생명은 누가 대신할자 없으니 만종만교종파가 날뛰며 스님 도사, 교주, 스승, 무당, 만신, 철학, 무술, 마술, 요가, 단전, 의술 등 모두 일불제자로 숨쉬는 생명 주인공 보고 듣는 견성하고는 하늘땅 차이, 마음심자 하나의 근본도 모르면서 허상과 귀신놀음에 젖어 중음신 놀음에 방석과 씨름하니 오직 죽을자가 사는길은 마음을 여는 호흡으로 숨쉬는 놈 내주인공을 빛으로 여는 영혼에 문을 이제라도 두뇌호흡으로 극락천당 가는 1분 3분 당신이 부처가 되는 수행 옴마 수련으로 부처가 되는 대용맹정진에 수행하소서. 혜안과 영혼에 문 현관을 열어야 성불한다. 숨을 멈추고 60초 천안통, 120초 천이통, 180초 타심통, 240초 숙명통, 300초 신족통, 360초 루진을 부처님 사분 6년고행 360궁 도시촌으로 사만트라-천상계, 사만다라, 지구계,사구계 중생계, 사성제 영혼계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 입제일 : 2018년 1월 27일(음 12.11) (토) 밤 9시 ■ 해제일 : 1월 28일(음 12.12) (일) 해시
■ 준비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죽음을 면하는 수행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태일)
■ 상담전화 : ☎ 032-502-6625, 010-9292-3110, 010-9718-4449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 천지공사 불선도 천궁도통회
사)대한불교달마조계종 예성용천사 환성 지계수복자 태일대사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1979년부터 국내최초로 각종 마이크를 연구,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을 주도해온 음향계의 원로
(해월)김문화가 몇 달간의 법당 실험 후
드디어
모든 스님들께 자신있게
권하는 마이크 -

소장 : 김문화 無線設備技社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고성능 마이크 출시!
염불, 법문전용 초 원거리용



탁좌에 꽂은 모양

•60cm이상 떨어져도 맑고 힘있고 장엄하게 울리는 소리에 한번 놀라고!
•목에 걸어도, 탁좌 스탠드에 꽂고써도, 뛰어난 성능에 한번 더 놀라는 마이크!

◆가격 : 175,000원(홀더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 자체 개발한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합니다!

본 초 고성능 마이크는 원거리용 고감도, 고성능마이크로, 법당의 탁좌, 또는 좌대의 염불, 법문, 전용으로 행사시 사회자용이나 "찬불가" 용 등 어느곳에 사용 하여도 뛰어난 원음의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에 건 모양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취급품목◆
▪최고급 파워드믹싱앰프
▪일반 스테레오엠프
▪법당 전용 대출력 스피커
▪각종 무선 마이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